

# 리더의 품격

Dignity in Leader

정익현 | 대한건축사협회 이사

이번 가을, 살고 있는 아파트 감나무에 '감이 있는 가을의 풍경을 다 함께 즐기세요'라고 쓴 풋말을 매달았다. 풋말은 얼마 전 비바람에 날아갔지만 홍시가 된 감은 초겨울의 이색적인 풍경으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. 한 해의 막달, 대한민국은 5년에 한 번씩 있는 대통령선거로, 우리 협회는 내년 2월 2년마다 돌아오는 회장선거를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바야흐로 리더를 선출하는 한 차례 큰 행사를 치른다.

장자 거협(胥箴)편에 수 천 명의 졸개를 거느리고 도둑질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큰 도둑 도척(盜賊)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. 한 번은 도척의 수하가 도척에게 '도둑에게도 도(道)가 있습니까?'라고 묻자 '어느 곳엔들 도가 없겠는가.'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.

'흠칠 물건이 있는 집을 알아보는 능력이 성(聖)이요,  
먼저 들어가는 것이 용(勇)이요,  
맨 뒤에 나오는 것이 의(義)요,  
되고 안 되는 것을 아는 능력이 지(知)요,  
흠친 물건을 고르게 나누는 것이 인(仁)이다.  
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큰 도둑이 된다는 것은 천하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.' 하였다.

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 도(道)를 다시 해석하면 성은 통찰력, 용은 술선수법, 의는 희생정신·책임감, 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, 인은 공평무사(公平無私)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. 우리 협회의 리더가 필요로 하는 덕목을 도척의 다섯 가지 도(道)에 견주어 보았다.

성(聖)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,  
용(勇)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앞장 서는 마음,  
의(義)는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신,  
지(知)는 일을 성공하게끔 하는 지혜,  
인(仁)은 회원 모두에게 고루 이로움을 주도록 협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.

대한건축사협회는 얼마 전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. 개정의 주요 골자는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(금품 및 향응 제공)의 원천적인 금지이다.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온 이런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우리의 리더를 뽑자는 자성(自省)의 발로에서였다. SNS가 발달된 세상에 아직도 원시적인(?)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.

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이 발전할 수 없듯이 얼마간의 고통과 시련을 기꺼이 견딜 마음 없이는 협회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. 멀리 그럴싸해 보이는 신기루를 좇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, 구겨질 대로 구겨진 건축사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리더를 회원은 원한다. 리더 본인의 꿈이 아닌 회원 모두의 꿈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리더를...

도척은 또 말한다. '세상 사람들은 모두 제가 모르는 바깥 것을 찾을 줄만 알지, 이미 아는 안의 것을 찾을 줄 모른다. 옳지 못한 것을 그르다고 할 줄만 알지, 이미 옳다고 생각한 것도 때로는 그른 줄은 모른다.' ㉮

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예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. 충청북도건축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,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.